



보도시점 2023. 4. 10.(월) 배포 시 배포 2023. 4. 10.(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34,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 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73건(종오리 8건, 종계 3건, 육용오리 28건, 육계 4건, 산란계 23건, 메추리 2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4건)

농식품부는 4월 7일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 최일선에 있는 농가의 철저한 방역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사육하는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담당 부서	방역정책국	책임자	과 장	홍기성	(044-201-2551)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담당자	사무관	김석재	(044-201-2555)

